

목표음을 이용한 빌 에반스의 솔로 기법 연구 - ‘Solar’를 중심으로 -

전선식,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뮤직트레이너학과
sunseekjun@gmail.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Solo Style of Bill Evans Using Goal Note - Focused on ‘Solar’ -

Sun Seek Jun,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Music Trainer Chungwoon University

요약

초기의 전통적인 재즈(올드 스윙 재즈)나 비밥 재즈 스타일을 탈피한 빌 에반스의 즉흥솔로 어법은 후대의 재즈 연주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재즈피아니스트로 활동한 빌 에반스는 현재까지도 많은 재즈 음악가들에게 교과서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그의 수많은 연주곡 중에서 스탠다드 재즈곡인 ‘Solar’의 연주를 통해 빌 에반스는 다양한 어법의 즉흥 솔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흥 솔로의 대부분에 반음계를 혼합하여 코드톤을 이용한 솔로를 연주하고 있는데, 이때 순차적인 상행, 혹은 하행의 목표음을 중심으로 프레이즈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클래식 음악 교육을 바탕으로 음악적인 성장을 했던 빌 에반스는 목표음을 설정하는 방식이 마치 클래식의 대위법적인 어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즉흥솔로 기법은 빌 에반스의 특징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1. 서론

블루스 음악으로 시작된 재즈 음악은 전통적인 스윙 재즈 시대(Swing Jazz Era)에서 비밥 재즈 시대(Bebop Jazz Era)로 발전해가는 동안에 몇몇 주요한 연주자들의 개성있는 연주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에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갔던 빌 에반스의 연주 기법과 사운드의 색채는 다른 연주자들과는 특별히 구별되는 점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후대의 재즈피아노 연주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타의 악기 연주자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예술적 가치를 높이 인정 받고 있다.

빌 에반스는 미국 뉴저지주 플레인필드에서 태어나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첫 음악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어머니에게 6세 때부터 클래식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모던 클래식 작곡가에 관심이 있는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였다. 그가 12세 때에는 그의 형 해리를 대신해 버디 발렌티노 밴드에 참여하여 연주하기도 하였다.

초기에 그는 악보대로 정확하게 연주할 수만 있었지만, 곡을 하모나이즈(화음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면서, 즉흥 연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후 1940년대 후반, 빌 에반스는 뉴저지의 여러 클럽에서 부기 우기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첫 번째 프로 활동은 시카고에서 활동한 색소폰 연주자 허비 필즈의 밴드에서였다.

또한 그는 사우스이스턴 루이지애나 대학교에서 음악 공부를 하였다. 1950년 졸업 연주회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였고, 피아노 연주 및 교육 학위를 받고 졸업하였다. 이러한 그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배경은 이후 그의 재즈 음악에 많은 바탕이 되었다.

이번 논문에서는 빌 에반스의 대표 앨범인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에 수록된 ‘Solar’의 연주를 분석해 보고 그의 대표적인 즉흥 솔로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본 논문에서는 빌 에반스의 대표곡인 ‘Solar’에서 자주 사용된 즉흥 솔로 기법을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악보는 연구의 중심이 되는 프레이즈를 중심으로 표기되고 있다.

2.1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에 수록된 연주곡 Solar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 앨범은 1961년 6월 25일

에 뉴욕시의 재즈 클럽인 Village Vanguard에서의 실황 연주를 담은 앨범이다. 이 앨범은 빌 에반스의 최고의 레코딩으로 꼽히기도 한다. 또한 현존하는 재즈 앨범 중에 최고의 라이브 앨범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앨범에서는 빌 에반스 특유의 사색적이며 서정적인 피아노 연주가 잘 드러나는가 하면, 베이스의 스타 라파로, 드럼의 폴 모션이 참여하여 탁월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재즈 신의 구심점을 이루었던 빌 에반스 트리오가 펼쳐내는 완벽에 가까운 연주를 들려준다. 'Waltz for Debby' 앨범과 함께 피아노-드럼-베이스로 이루어지는 피아노 트리오 연주의 교과서적인 면모를 제시해 준 앨범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2.2 목표음을 이용한 Solar의 즉흥 연주 분석



[그림 1] Solar의 제36~40마디

[그림1]은 Bill Evans가 연주한 Solar에서 멜로디를 연주 후의 2번째 솔로 코러스 시작 부분이다. 제36마디 3째박의 B음 - 제37마디 2째박의 C음 - 제37마디 4째박의 D음 - 제38마디 4째박의 E음 - 제39마디 2째박의 F음 - 제39마디 1째박의 Gb음으로 이어지는 목표음을 중심으로 한 솔로 라인이 순차적인 상승선을 이루며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Solar의 제49~56마디



[그림2]의 악보에서는 빌 에반스가 두 번째 연주한 솔로의 시작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그림 1]에서 살펴본 내용과 유사하게 솔로 라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제50마디 4째박의 G음 - 제51마디 2째박의 A음 - 제52마디 2째박의 Bb음 - 제52마디 4째박의 B음 - 제53마디 3째박의 Bb음 - 제55마디 1째박의 Ab음으로 이어지는 목표음을 사용하여 솔로 라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목표음이 순차적으로 상승한 후, 다시 하행하고 있다.



[그림 3] Solar의 제130~133마디

[그림3]에서는 앞선 두 예시와는 다른 스타일의 솔로 라인을 예시로 살펴보겠다. Solar에서 나타나는 빌 에반스 솔로의 앞부분에서는 주로 아르페지오를 중심으로 한 양손 유니즌(양손으로 동일한 음을 연주하는) 솔로를 많이 진행했다면, [그림3]의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재즈 솔로에서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 스케일적인 라인의 솔로가 연주되고 있다. 빌 에반스는 이러한 스케일적인 라인으로 연주하는 경우에도 목표음을 중심으로 솔로 라인을 전개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제130마디의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목표음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제131마디 1째박의 G음 - 제131마디 2째박의 F음 - 제131마디 3째박의 E음 - 제132마디 1째박의 Db 등이 목표음이 사용되고 있다.

3. 결론

재즈 음악에서 오랫동안 연주되었던 즉흥 솔로에는 무수히 많은 연주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발달하는 기법들이 있는 반면에, 점의 형태와 같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법들도 사용되고 있다.

빌 에반스가 연주하는 솔로의 기법들은 많은 부분에서 코드톤과 코드 스케일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솔로 라인이 가진 복잡한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어떠한 목표점을 가지고 솔로의 라인들이 움직이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점들이 있을 때, 청자는 연주자가 표현하려는 음악적인 방향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빌 에반스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진 감정의 흐름과 음악적인 전개를 잘 전달하는 연주자라는 것을 그의 연주에서 많은 부분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1] Hal Leonard 출판사. The Bill Evans Trio - Volume 1 악보집. 2003.

[2] 위키피디아, “빌 에번스”, 2024.10.13.

https://ko.wikipedia.org/wiki/빌_에번스

[3] 나무위키,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 2024.10.13.

<https://namu.wiki/w/Sunday%20at%20the%20Village%20Vanguard>

[4] Bill Evans 앨범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